우리나라의 세계유산 ⑨ 종묘와 종묘제례 및 제례악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를 모신 왕실사당

이 종 훈
포천시회장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종묘(宗廟)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神位)를 모신 왕실사당이다. 종묘에서는 매년 종묘에 모셔져 있는 역대 왕과 왕비에 대한 제례가 행해졌다. 제례가 행해질 때 기악(器樂)과 노래와 무용을 포함하는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이 거행되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world heritage)으로 등록되어 있고,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록되어 있다.

한성에 수도를 정하고 맨 먼저 정해진 자리는 궁궐이었다. 그리하여 북악산(北岳山) 아래 자리 잡은 것이 경복궁(景福宮)이었다. 좌묘우사(左廟右社) 원칙에 따라 경복궁을 기준으로 왼쪽에 종묘가 오른쪽에 사직단(社稷壇)이 만들어졌다.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왕실의 사당이었다. 또한 사직은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지내던 곳이었다. 종묘와 사직은 왕조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건이었다.

종묘는 1394년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직후에 착공하고 이듬해 9월에 완공하여 태조의 4대조의 신주(神主)를 모셨다. 종묘제도는 중국 주(周)나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중국의 태묘(太廟)에서는 태실(太室)이 9실에 불과하나 한국의 종묘는 태실이 19칸이다. 종묘의 경내에는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을 비롯하여 몇 개의 부속 건물이 있다. 종묘 정전은 처음에 태실 7칸, 좌우에 딸린 방이 2칸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이후 재건하고, 다시 증축하여 현재 태실 19칸으로 되어있다. 영녕전 역시 처음에는 6칸의 규모였는데, 현재는 16칸이다. 현재 정전의 19개 신실에는 태조를 비롯한 왕과 왕비의 신주(49위)가 모셔져 있으며, 영녕전 16실에는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34위)를 봉안하고 있다.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이라 칭하여지고 있을 만큼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된다.

종묘와 관련된 것으로 묘호(廟號)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임금이 죽은 뒤 종묘에 그 신위를 모실 때 드리는 존호(尊號)였다. 세종대왕, 정조대왕 할 때 세종(世宗), 정조(正祖)가 묘호이다. 묘호로는 종(宗)과 조(祖)의 두 가지를 썼다. 종묘제례란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의식으로, 조선시대의 나라제사 중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였기 때문에 종묘대제(宗廟大祭)라고도 한다. 유교사회에서는 다섯 의례(五禮) 중 제사를 으뜸으로 여겼으며, 이를 '효' 실천의 근본으로 삼았다. 유교가 국가의 근본이념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조상에 대한 숭배를 인간의 도리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법도로 여겨 제사를 특히 중시하였다.

종묘제례는 크게 정시제(定時祭)와 임시제(臨時祭)로 나뉜다. 정시제는 봄·여름·가을·겨울의 첫 달과 섣달에 지냈으며, 임시제는 나라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지냈다. 그밖에 계절에 따라 햇과일이나 곡식을 올리는 천신제(薦新祭)도 있었다. 현재는 전주리씨대동종약원이 행사를 주관하여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하고 있다.

종묘제례

종묘제례는 제사를 지내는 예법과 예절에서 모범이 되는 의식이기 때문에 제례는 매우 엄격하고 장엄하게 진행된다. 종묘제례의 절차는 신을 맞이하는 절차, 신이 즐기도록 하는 절차, 신을 보내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묘제례악은 종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의식을 장엄하게 치르기 위하여 연주하는 기악(樂)과 노래(歌)·춤(舞)을 말한다. 조선 세종 때 만들어졌던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세조10년(1464) 제례에 필요한 악곡이 첨가되면서 종묘제례악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종묘제례악이 연주되는 동안 문치와 무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용인 문무(文舞)와 무무(武舞)가 곁들여 진다. 일무는 가로, 세로 같은 수의 인원이 열을 지어 추는 춤으로 서열에 따라 8일무(64명), 6일무(36명), 4일무(16명), 2일무(4명) 등이 있다. 문무는 역대 선왕들의 문덕을 기리는 춤으로 보태평에 맞추어 왼손에는 피리종류인 약을 오른손에는 깃털을 단 적(翟)을 들고, 무무는 선왕들의 무공을 칭송하는 춤으로 정대업에 맞추어 나무로 만든 칼과 창, 활과 화살을 들고 추는 춤이다.

종묘제례악은 600년 전의 선율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종묘는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고,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2001년 5월 18일 세계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다.

교육에세이 40

손에는 책을, 가슴에는 꿈을 지닌 청소년이 됩시다

지 정 주
포천여자중학교 교장

사랑하는 포천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하디 연하던 연둣빛 새 싹이 어느새 무성한 잎사귀로 자라 진초록의 그늘을 드리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베푸는 삶을 깨닫게 하는 유월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엘리뇨 현상에 의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벌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하고, 간간히 습한 비를 뿌려 학생 여러분들이 면학(勉學)에 정진하기에 결코 수월치 않은 계절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절 변화에 너무 민감하여 배움을 중단하거나 학년 초에 수립한 목표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외교관으로, 언론인으로, 또한 독립 운동가로도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지신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는 "배워라, 믿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 권의 책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 유명한 일화(逸話)들이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제 시골 소년 윤무부가 '파브르 곤충기'를 만나 유명한 새(鳥)박사가 된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例)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독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독서는 사람을 해박하게 하며 교양을 넓혀주고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갖게 해주며 인생을 재미있게 해줍니다. 학생들이 읽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것이 권장도서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우선적으로 권장도서를 읽으면서 독서력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말고 오늘부터 책을 읽읍시다. 학생 여러분들도 익히 아는 말로, 오직 책 읽기에만 골몰(汨沒)하는 것을 독서삼매(讀書三昧)라 하는데, 독서삼매에 빠져드는 여유는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삼매(三昧)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게 되는 초월의 상태를 말하는데, 마음을 집중해서 독서를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아인슈타인은 책을 읽느라 배고픈 줄도 몰랐다 하고, 산사(山寺)의 스님들은 참선을 통해 더위를 쫓는다고 합니다. 독서삼매를 독서삼도(讀書三到), 즉 눈과 입과 마음 이 세 가지가 책 읽는 데에 이르러 있는 상태라 하는 것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52년의 생애를 살면서 약 8천 여권의 책을 읽은 나폴레옹은 달리는 말 위에서도, 포연(砲煙)이 자욱하게 서린 진지(陣地) 안에서도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발굽은 유럽 대륙의 구석구석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으나, 그의 독서 편력 또한 동서고금(東西古今)으로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얻은 것이 땅과 권력이었다면, 독서로 얻은 것은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예지(叡智), 부하를 아끼는 인간애, 끝없는 인내와 각고의 노력, 강인한 의지, 무한한 정신의 세계였을 것입니다. 괴테(Goethe)는 그를 가리켜, "거창하고 당당하며 항상 D장조 같은 참인간"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우리가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뛰어난 용맹이 아니라, 문화를 사랑하고 정신의 세계를 귀히 여기는 인간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의 말처럼 독서는 끝없는 정보의 샘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책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언어와 사고(思考)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며, 인간 됨의 궁극적인 자부심은 책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학습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은 한정된 시간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쉼 없이 흘러가고 있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여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터득한 성현(聖賢)의 말씀을 책 속에서 만나 풍부하고 다양한 삶의 지혜를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 쫓기다 보면 우리는 의외로 책의 소중함과 독서의 즐거움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라는 책 내용 중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책을 읽자입니다. 둘째, 희망을 주는 책을 읽자입니다. 셋째, 고전(古典)을 읽자입니다. 넷째, 한 권의 책을 뜨겁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독후감을 쓰자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젊음과 열정을 지닌 청소년입니다. 청소년기는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되어 나타납니다. 배움에 목말라 하며 항상 손에는 책을, 가슴에는 원대한 꿈을 간직하여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청소년으로서 책을 멀리하지 않고 독서와 사색으로 내면의 뜰을 가꾸어 가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이산가족 문제해결은 정치적 이해관계 뛰어 넘어야

박 정 근
대진대학교
영문학과교수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어 해방 후 처음으로 끊어졌던 철로가 이어졌다.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한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이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이념적 갈등으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어 억지로 사지를 찢겨 버려졌던 것이다.

우리의 산야가 핏빛으로 물들어 생긴 자국을 긴 세월 진한 눈물로 씻고 또 씻었다. 이젠 상처가 아물어가고 새 살이 돋아나야 할 시점인가 보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의 고리가 풀리면서 남북화해와 교류의 상징으로서 경원선 복원이라는 국민적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다. 이 행사는 단순한 겉치레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 **『실수연발』에서 잃어버린 형제를 찾으러 에베소에 온 시라쿠스의 앤티폴루스는 자신의 신세를 물방울에 비유한다. 형제를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 마치 바닷물에 섞여 존재를 상실한 물방울과 같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는 대양에서 다른 물방울을 찾고 있는 물방울과 같은 사람이다. 그 물방울은 동료를 찾으려다가 바다에 빠져 자신의 신세를 망치는구나. 마찬가지로 나도 어머니와 형제를 찾아 유랑하다가 불행하게도 내 자신을 잃고 마는구나." 라고 슬픔을 토로한다.**

지금까지 막혔던 민족 간의 핏줄들이 응혈을 풀고 맑은 피로 흐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가족의 재결합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리라. 북한은 더 이상 정치적 문제해결을 조건으로 남북철도 운행이나 이산가족 재결합의 문제를 연계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은 자연적인 재해로 해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물들을 그리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가족이라는 기본적인 집합체를 잃어버리면 개체적 정체성이 상실되거나 왜곡되는 허약한 존재이다. 우리는 자연적 재해나 전쟁 등으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보고 연민을 느끼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실수연발』에서 잃어버린 형제를 찾으러 에베소에 온 시라쿠스의 앤티폴루스는 자신의 신세를 물방울에 비유한다. 형제를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 마치 바닷물에 섞여 존재를 상실한 물방울과 같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는 대양에서 다른 물방울을 찾고 있는 물방울과 같은 사람이다. 그 물방울은 동료를 찾으려다가 바다에 빠져 자신의 신세를 망치는구나. 마찬가지로 나도 어머니와 형제를 찾아 유랑하다가 불행하게도 내 자신을 잃고 마는구나"라고 슬픔을 토로한다.

앤티폴루스의 정체성의 상실이나 착각은 그의 혼란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이나 사회로 연결되고 발전된다. 남편을 빼어 박듯이 닮은 앤티폴루스를 남편으로 착각한 아드리아나는 자신을 몰라보고 소원하게 대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마저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토로한다.

남편을 닮은 외간남자를 남편으로 오인한 나머지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해하는 앤티폴리스에게 결혼이 상징하는 남편의 정조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

물론 이런 정체성의 혼돈은 심각하기보다는 희극적인 효과를 낳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할 때 개체에게 끼치는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아, 저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낭군이시여, 저에게서 당신을 떼어놓으면서 저 역시 데려가지 않기보다는 파도가 부서지는 만에다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후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그 물방울을 그대로 다시 주워 담는 일이 더욱 쉬울 거예요"라고 말하는 아드리아나는 개체의 정체성이란 홀로 독립하여 존재하기 보다는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없는 자신은 파도 속에서 물 한 방울을 다시 찾는 일보다 어렵다고 봄으로써 개인에게 가족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해주고 있다.

한민족에게 남북의 분단은 정치적 이념의 지나친 강조를 통해서 개인의 행복을 등한시하는 비인도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소련과 동구의 공산정권의 몰락은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집권층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인간적 행복을 양보해야 하는가. 그들이 내세웠던 애국애족이란 명분은 의미 없는 허수아비의 노래가 되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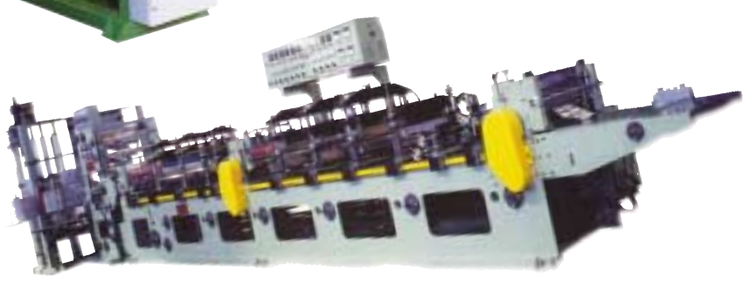
남북당국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민족의 상처를 운운하면서 가족을 잃고 아직도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 방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아픔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물론 뜬구름 잡는 통일지향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작은 개개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관용적 조치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가물에 콩 나듯이 행사성의 이산가족 상봉보다는 상시적 만남의 장을 만들어 그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공동체 의식은 허약하기 짝이 없는 모래섬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동독 시민들에게 인도적 자유가 어떤 기득권보다 우선이었듯이 한 민족 또한 나뉘어진 민족정서를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통일을 이루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한다.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포장지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산품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낚시용품 포장지류

가공제품
스탠딩삼방, M자가공,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용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00-4 / 전 화 : (031) 536-3531/ 팩 스 : (031) 536-3530 / H·P : 011-279-4002 / 대 표 : 최 정 택